

상도동 214번지… 29층·1840세대 주거단지 ‘탈바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확정

용도지역 상향해 사업성 개선
국사봉 있는 공원·보행축 조성
양녕로 확폭·교통체계 전면 손질
9월 정비계획 입안 절차 착수

급경사와 협소한 골목길, 높은 반지하 비율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4번지 일대가 최고 29층, 약 184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공원·보행축과 교통체계를 함께 손보는 내용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도동 214 일대는 국사봉 자락에 위치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비율이 높고, 급경사와 협소한 골목길, 높은 반지하 비율 등으로 재개발 위험과 교통 불편이 이어져 온 지역이다.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지만 소규모



상도동 214 일대 신속통합기획 부지 조감도.

/뉴시스

모 골목길 개선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

및 제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고 2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대상지의 약 67%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었

던 만큼 이번 용도지역 상향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경관도 함께 정비한다. 국사봉과 공원으로 이어지는 3개 통경축을 확보해 열린 경관을 조성하고, 급경사와 웅벽이 있는 공원변에는 건축물을 이격하고 계단식 화계를 설치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녕로에서 상도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도도 새로 조성된다. 기존 공원 둘레길과 동작충효길을 단지와 연결해 보행 접근성을 높이고, 북서측 평지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신설한다.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데크 하부에는 돌봄센터와 시니어클럽,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서측 생활가로 변에는 연도형 상가를 조성해 단지 인파의 생활권을 연결한다.

교통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일방통행으

로 운영되는 북측 양녕로26나길은 도로 폭을 넓혀 양방향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호교차로를 도입한다. 사고 위험이 컸던 양녕로와 국사봉터널 진출로 접속부는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를 통과하던 도로로는 신상도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를 잇는 보행로로 바꾼다. 대신 서측 경계부에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배치해 대중교통 접근성과 통학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상도동 2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311개 대상지 가운데 195곳의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동 214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비계획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과학고 역대최대 선발… 경기 모집 3배 확대

경기 과고 100명→300명 3배 확대 부천·분당중앙과고 100명씩 선발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과학고 입시에서 전국 22개교가 1858명을 선발한다. 부천과고와 분당중앙과고가 새로 문을 열면서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216명(13.2%) 늘어 1983년 국내 첫 과학고 개교 이후 최대 규모가 됐다. 특히 경기지역 과학고 선발 인원이 기존 100명에서 300명으로 3배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중학생들의 과고 지원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22개 과학고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총 1858명이다. 지난해 20개교 1642명보다 학교는 2곳, 모집인원은 216명 증가했다.

과학고 선발 인원은 2013학년도 19개교 1606명에서 2014학년도 20개교 1708명으로 늘어난 이후 1600명대를 유지해왔다. 올해 1858명으로 늘면서 종전 최대였던 2014학년도보다 150명 웃돌게 됐다.

올해 선발 확대는 경기지역 과학고 2곳의 신설 영향이 크다. 지난해까지 경기지역 과학고는 경기북과고 한 곳으로 10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 부천과고와 분당중앙과고가 각각 100명을 선발하면서 3개교 300명 체제가 된다. 전국 증가 인원 216명 가운데 200명(92.6%)이 경기지역에서 늘어나는 셈이다.

전북과고도 익산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모집인원을 기존 80명에서 96명으로 16명 늘렸다.

신설 과고에는 해당 지역 학생을 위한

별도 선발도 도입된다. 부천과고는 전체 100명 가운데 일반전형 80명, 사회통합전형 2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80명 가운데 최대 20명은 부천지역 학생을 별도로 선발한다. 분당중앙과고 역시 일반전형 80명과 사회통합전형 20명을 모집하며 일반전형에서 성남지역 학생을 최대 20명까지 별도 선발한다.

경기지역 과학고 확대는 앞으로도 이어진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9학년도에는 시흥과고,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진학하는 2030학년도에는 이천과고 개교가 예정돼 있다.

최근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과학고·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현진 기자

인천 스타트업 빅테크 업고 해외시장 공략

글로벌 5개사 기술·경영 역량 연계
쉐코 대만 등 3개국 납품·협업 성과

인천광역시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있는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 참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 사업’은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웹서비스·IBM·지멘스·엔시스 등 5대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경영 역량을 인천 스타트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글로벌 사업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 스타트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및 계약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해양방제로봇 기업 쉐코는 지멘스와 협업으로 통해 대만 등 3개국에 납품완료 및 협력이 이루어졌고, 미국 1만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연을 준비 중이며, 사우디아

라비아 아랍코 벤더 등록 후 후속 파이프라인도 형성했다. 지멘스 기반 인공지능 설계 체계를 활용해 국가별 대응 속도를 높였고,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검증을 통해 해외 시연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을 줄였다.

스마트팜·수목관리 기업 그리너랩은 아마존웹서비스 기술을 활용해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 기반을 고도화했다. 아마존웹서비스 기반 기술을 통해 현지 상주 인력 없이 해외 현장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이제메이커를 활용한 지속 학습 체계를 구축해 커피팻트 시장에 진출했다. 케냐 내 사업대상 농장을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는 안전솔루션 기업 아이캡틴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마이크로소프트의 SaaS 기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 안전 대피와 훈련, 시설·학생 관리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 1건을 출원 중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 학생 농촌유학 장기화… 10명 중 9명 연장

2학기 참여 569명 중 521명 연장
지원기간 6개월서 최대 1년 확대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이 ‘한 학기 체험’에서 장기 체류 형태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올해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서울 학생 569명 가운데 521명이 기존 유학 생활을 이어가는 연장 참여자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체 참여자의 92%가 연장을 선택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는 서울 학생 569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신규 참여자는 48명(8%), 연장 참여자는 521명(92%)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제주 농촌유학 운영학교인 성음초에서 열린 ‘벨롱벨롱 꿈자랑 발표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과 마을, 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와 제철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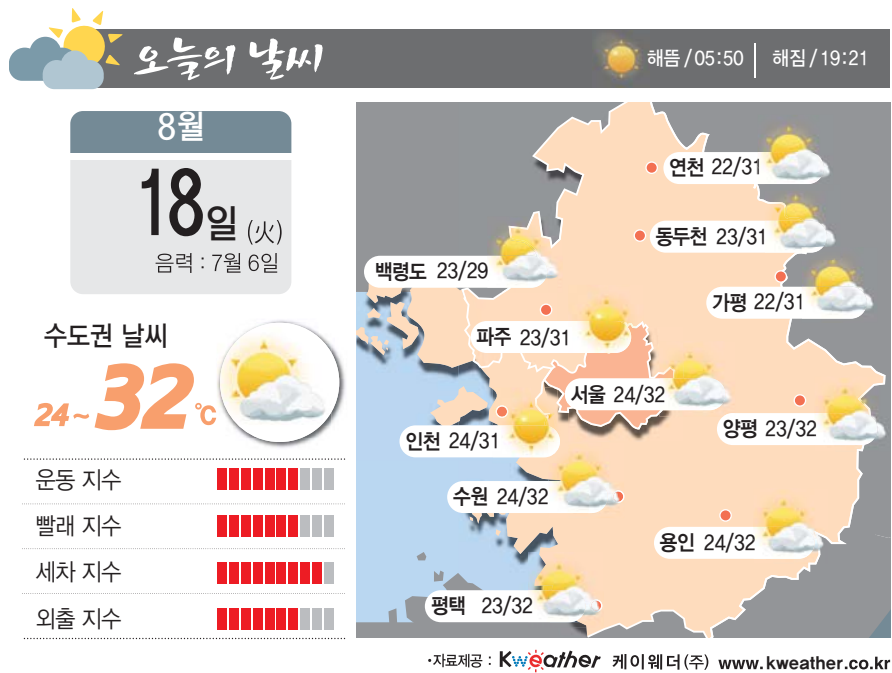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전남·전북·강원·제주·인천 등 5개 지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유학 지원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 학기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지원기간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같은 농촌학교에서 학업과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31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124명, 전북 109명, 제주 105명 순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日, 10년물 국채금리 한때 2.93%… 30년 만에 최고치
▲시진핑 “장쩌민, ‘대만 독립’ 강력 반대… 전략적 사고 배워야”
/사진 뉴시스

▲중간선거 3개월 앞… 美유권자 과반 “트럼프 2기서 살림 악화”
▲이스라엘의 미가자평화안 거부에 이집트 등 8개국 비난 공동성명

▲미·이란 ‘60일 핵협상’ 사실상 무산… 호르무즈 놓고 힘겨루기
▲인도네시아 7.7 강진으로 사망자 53명으로 늘어